‘찰나·영원’ 주목한 바라캇 불교 컬렉션

갤러리 바라캇 서울 ‘찰나와 영원’ 展
4월 7일까지 2부(간다라 불상)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박물관급의 고대 예술 컬렉션을 보유한 바라캇 갤러리가 4월 7일까지 갤러리 바라캇 서울에서 고대 불교 미술품을 선보이는 ‘찰나와 영원’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바라캇 컬렉션 중 엄선된 불교 미술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지난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 열린 ‘찰나와 영원’ 전 1부 전시는 중국 명대의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4월 7일까지 ‘아기 부처를 안고 있는 마야 부인상’ 등 간다라 지역 불상 작품을 중심으로 한 2부 전시를 진행한다.

불상의 기원으로 알려진 간다라 미술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가 만나 탄생했다.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려 했던 그리스 문명과 간다라 지역에서 일어난 대승불교 사상이 만나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간다라 지역에서는 대승불교 사상을 반영하듯 부처님상과 더불어 보살상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작품에는 불법에 귀의하고 보살행을 통해 열반에 이르고자 했던 당시 왕족과 귀족의 장신구와 복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당시 사람들의 상상과 염원으로 조성된 부처님상은 전생담과 초기불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바라캇의 불교 컬렉션은 폭넓은 시대와 지역의 작품들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전시 또한 중국에서부터 인도,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티베트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의 불교 조각과 불화로 구성된 전시로 ‘불교’를 공유했던 시대로 돌아가 본다.

기원후 1세기경 헬레니즘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도대륙에서 최초의 상(像)으로 등장한 간다라 불교미술,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와의 교류 속에서 독자적인 양식으로 거듭난 중국 불교미술, 그리고 정교하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명상과 수행에 도움을 주는 티베트 불교미술을 경험할 수 있다.

‘찰나’는 시간의 최소 단위를 일컫는 말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찰나마다 생멸을 반복하면서 무한으로 이어져나간다고 말한다. 이번 전시는 깨달음의 순간, 그 찰나의 시간이 시공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이 되는 불교적 역설에 주목했다.

2천5백여 년 전 인도의 동북부에서 시작된 불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을 보는 찰나의 순간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됐다. 이후 불교는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어 영향력을 확대하고 최초의 세계 종교로 자리매김했다. 석가모니부처를 따른다는 기본 개념을 공유하며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불교문화를 끊임없이 토착문화와 결합해 다채로운 도상을 생산했다.

바라캇 서울은 “이번 전시는 작품의 지역적, 시대적 특색을 살펴보고 동시에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가치, 찰나의 깨달음에 담긴 영원에 대해 고찰해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불교미술을 역사적, 미학적으로 감상하고 나아가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경험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간다라 편암제 아기 부처를 안고 있는 마야 부인상, 편암, 기원후 100~400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부처의 일생묘사 부조들. 간다라 편암, 기원후 200~600

바라캇 서울은 박물관급의 고대 예술 컬렉션을 보유한 바라캇 갤러리가 런던, 로스엔젤레스, 아부다비에 이어 서울에 문을 연 새로운 개념의 전시공간이다. 바라캇 갤러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 비잔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프리콜롬비아 등 시대와 지역을 망라하는 4만여 점의 수준 높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바라캇 갤러리의 시초는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라캇 가문은 5대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수집한 성서유물을 기반으로 전세계의 유물로 컬렉션을 확장해나갔다. 또한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과 협업하며 품격있는 고대예술품을 박물관, 개인 컬렉터들과 소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문화, 예술, 고고학 등 다방면으로의 확산과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바라캇 서울에서는 바라캇 패밀리 중 최초로 고대예술 컬렉션과 더불어 현대미술 공간을 열었다.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도하는 현대미술 전시를 통해 옛 흔적과 새 시대를 아우르는 예술적 다양성, 이질적인 문화의 교차와 충돌, 여러 분야의 협업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며 과거와 현재를 새롭게 해석하는 미래를 창조해 나아가고 있다. (02)730-1949

뉴욕으로 간 고려 사경·불화

김경호 · 조이락, 사경 · 불화 초청전
‘깨달음, 명상 그리고 보살의 길’
뉴욕 티베트하우스 3월 13일~5월 9일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미술인 고려사경과 고려불화가 미국 뉴욕에서 전시된다. 뉴욕한국문화재단(이사장 김지영)은 3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뉴욕 티베트하우스에서 사경가 김경호 작가와 불화가 조이락 작가의 초청전 ‘깨달음, 명상 그리고 보살의 길’을 개최한다.

아시아위크를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초전법륜도 만다라’, ‘감지금니일불일자 화엄경약찬게’ 등 김경호 작가의 대표 사경 작품과 ‘수월관음도(물방울)’ 등 조이락 작가의 고려불화 대표 작품들이 티베트 고대 탕카와 함께 전시된다.

아시아위크는 세계적인 화랑들이 밀집한 뉴욕 맨하탄에서 아시아미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2009년 뉴욕시 차원에서 시작됐다. 매년 3월에 10일 동안 메트로폴리탄, 브루클린 박물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티베트하우스, 뉴욕 한국문화원, 루빈 박물관, 재팬 소사이어티 갤러리 등 뉴욕의 크고 작은 박물관과 전시관 등이 아시아 미술전시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아시아 미술과 작가들을 소개한다. 이 기간 중에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세계적인 딜러, 갤러리 관계자, 큐레이터와 컬렉터들이 찾아와 작가들의 작품과 만난다. 뉴욕한국문화재단은 “고려불화와 고려사경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심의 대부분은 고려시대 작품에만 머물러 있고, 이 시대의 작가에는 관심이 적다.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를 뛰어넘는 이 시대 작가들의 작품과 작가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시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作 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좌측)와 조이락 作 수월관음도.

티베트 하우스는 티베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구이면서 상설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티베트 불교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심속 포교당이자 문화원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인적 ·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계의 사회인사와 헐리우드 배우, 팝스타들을 대거 티베트 하우스 사업에 동원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작품 전시, 출판, 학술회의 등을 통해 미국 사회에 티베트 문화를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티베트의 명상법을 접할 있는 수행처이기도 하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 원장인 김경호 작가는 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이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통사경 기능 전승자로 한국 전통사경의 개척자이다. 조선왕조 이후 600년 동안 단절되었던 사경의 전통을 계승했다. 19회의 사경 개인전과 초대개인전을 가졌고 20권의 저서(공저 3권을 포함)가 있다.

조이락 작가는 서양화가로 활동하던 중, 1999년 우연히 본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 매료되어 불화에 입문했다. 이후 용인대 대학원에서 고려 불화와 유물재현을 공부했으며, 모사와 보존과학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다. 대표적인 고려불화 재현 전시는 2005년 용인대학교박물관에서의 개인전과 2015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고려불화 재현전’, 2017년 뉴욕에서 개최한 ‘고려불화 그 신비함과 만오천불도, 아미타여래도’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영주 금강사 터에서 만난 보물’展 연장

국립대구박물관 6월 30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열린 테마전시 ‘영주 금강사 터에서 만난 보물’의 전시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지난해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던 전시는 금광리 유적의 고려시대 사찰 금강사지에서 출토된 광명대 등 고려시대 유물 34점을 전시해 고려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광명대는 우리나라에서 23점 정도만 알려져 있고 광명대와 함께 출토된 향완이나 청동솥 등이 우물 속에서 확인된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금강사터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려시대 지방사, 불교사 연구에 있어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금강사의 존재가 밝혀진 영주시 금광리 일대는 영주댐 건설이 시작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053)760-8542 박재완 기자



